

# 보성군, 노후 농공단지 청년 선호 혁신공간 탈바꿈

사업비 189억원 확보 3곳 개선  
10월 입주기업 의견 수렴 거쳐  
미래 신성장 산업단지 발돋움  
주거형 원룸 11실·쉼터 조성 등

보성군이 노후화된 농공단지 환경을 개선해 청년들의 맞춤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박차를 가한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 총 사업비 5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별교, 미력, 조성 농공단지 3곳 모두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이 이뤄져 총 189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4년도 산업단지환경조성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노후 공장 리뉴얼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으로 각 사업당 4년간 지원한다.

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

돼 1990년 준공해 운영 중인 별교 농공단지의 노후 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월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별교농공단지 내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미래 신성장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별교 입주 기업협의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사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별교 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2층·전체 면적 1300㎡)는 1층에 다목적 청년문화실,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어학센터, 마음 쉼터, 비즈랩, 2층에는 주거형 원룸 11실과 힐링 쉼터로 조성된다.

주거형 원룸 신설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가 충족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별교 농공단지



보성군 별교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내 공공 지원 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보성군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보성군은 농공단지가 100% 분양돼 추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을 만큼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미력, 조성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 복합·청년문화센터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 농공단지는 2025년 12월, 미력 농공단지는 2027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 공중화장실 모바일 불편신고 구례군, 관내 106개소 대상 운영

구례군은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과 불편 사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군민과 방문객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공중화장실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시설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구례군은 관내 106개소 공중화장실에 QR코드를 부착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설점검과 불편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인증 과정이 필요 없다.

현장관리자가 불편신고로 접수된 공중화장실을 QR코드 식별값에 따라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첨부된 현장 사진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범비는 시기에도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백일해 확산' 예방수칙 실천 순천시, 올바른 손 씻기 등 당부

순천시는 올해 백일해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백일해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비말 감염 및 오염된 물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이 심하지 않은 발작성 기침, 콧물, 눈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1~2주간 나타난다. 2~3주 후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진다.

1세 미만 영아는 중증 합병증의 위험이 크므로 총 6회 적기 접종(2개월·4개월·6개월, 15~18개월, 4·6세, 11~12세)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내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시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만616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1275명, 순천에서는 105명이 보고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시기를 준수하고,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등교 및 등원을 자제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 구례군,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희생자 명예 회복사업 일환

구례군은 지난 4월 2일부터 7개월간 '구례 10.19연구회' 주관으로 운영한 '여순사건 역사학당'을 지난 5일 성료해 지역 여순사건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여순사건법이 시행된 후, 구례군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역사학당을 연구회 주관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역사학당 기본과정을 운영하여 2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심화과정에서는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구례군의 피해사태 등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전문가 17명을 최종 양성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아쿠아리움과 함께 한밤의 산책' 여수시, 15일까지 참여자 모집

여수시는 야간관광투어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 참여자 120명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은 여수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아쿠아리움 관람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을 야간에 산책하며 마술쇼를 즐기는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 모집 이후 오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 운영되며 참가인원은 회당 30명이다.

참가 자격은 타 지역 거주자 중 견기를 좋아하고 여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 120명을 접수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으로 아쿠아리움 입장료와 바비큐파티 체험, 여수세계박람회장 산책, 숙박 등 여수의 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수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061-659-3868)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찾아 청소 봉사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초수급자 가구 청소 봉사

여수시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주성문)가 지난 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청소 봉사를 실시했다.

10일 여수시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대상자는 돌산읍 작금마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로 밀반찬 지원을 월 2회 받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밀반찬 배달을 위해 가정방문 당시 대상자가 수년간 쓰레기

를 모아두며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충과 벌레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동네 복지공동체와 협업해 청소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 도시관리공단이 암롤박스(폐기물 적재함)를 지원했으며 봉사단은 이날 10톤가량의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마당의 잡풀을 제거했다.

주성문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의 사연을 듣고 마음

이 아팠다"며 "앞으로는 쓰레기 없는 집에서 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북 돌산읍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청소 봉사에 참여해주신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산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이경기 기자

## 장흥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투표

### 과·팀 단위 부서 부문 별도 선발

장흥군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매년 상·하반기 선발했으나 특히 올해는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반기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과·팀 단위 부서 부문을 별도로 선발한다.

투명한 절차 및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직원투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점 등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

앞서 10월에는 군민과 전 부서에게 적극행정 사례를 추천받아 1차 내부 심사를 거쳤으며 2차 직원·국민투표, 3차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7건을 선정하고 이를 추천한 공무원 및 부서에 인사상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소통24([https://](https://sotong.go.kr)

sotong.go.kr)를 통해 장흥군민뿐만 아니라 장흥군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민 체감도, 적극성,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추천사례 개인 부문 7건 중 2건, 부서 부문 2건 중 1건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김전환 기자